

당뇨병을 가진 혈액투석 환자에서 Metformin 사용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

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¹, 명지병원 신장내과²

문성진¹, 이철호², 윤수영¹

Inquiry About Safety of Metformin use in Hemodialysis Patients with Diabetes

Sung Jin Moon¹, Cheol Ho Lee², Soo Young Yoon¹

Kwandong University Nephrology Department¹

Myongji Hospital Nephrology Department²

Metformin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있어 매우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으며, 현재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사용 중이다. 그러나 신기능이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는 젖산 산증의 위험성 때문에 그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.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자들은 혈액투석 중인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Metformin을 사용했던 환자들의 임상자료를 검토하여 젖산 산증의 발생을 및 위험인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.

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던 283명의 환자들 중에서, 혈당 조절을 위해 한 달 이상 Metformin을 투여 받았던 환자는 총 23명이었다. 평균 나이는 66.2±12.2세, 남녀 비는 15:8 이었다. 평균 약물 사용 용량은 545±347 (125-1700) mg 이었으며, 사용기간은 23.2±18.8 (1.0-59.9)개월 이었다. 젖산 산증이 발생한 예는 없었다.

이번 조사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Metformin을 사용한다고 해서 젖산산증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음을 보여 준다. 하지만 증례의 수가 적어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

Key Words: 메트포민, 젖산 산증, 혈액투석

Metformin, Lactic acidosis, Hemodialysis